

# 고물가에 착한가격 'B급·못난이 농산물' 인기

### 과일·채소 가격 폭등... 대형마트, 냉동 채소·과일 등 매출 급증 'B급' 농산물 정상품 대비 최대 30% 저렴... 물가 안정 도움 기대

주부 최모(여·63)씨는 최근 재래시장보다 비교적 농산물 가격이 비싼 대형마트를 찾았다고 한다. '못난이' 농산물이라고 불리는 'B급' 농산물을 구매하기 위해서다.

최씨는 생김새는 정상품에 비해 바가 못하지만, 맛과 영양에서 특별히 차이가 없는 데다 가격까지 저렴해 자주 찾게 된다고 했다.

특히 가장 큰 매력은 '가격'이다. "요즘처럼 농산물이 비쌀 때 장바구니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라고 최씨는 설명했다.

1인 가구인 직장인 이모(여·29)씨는 지난주 유통업체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냉동 대파와 양파를 샀다. 한 끼 식사할 때 사용하는 채소의 양은 적는데, 마트 등에서 채소를 구매하면 재료가 남아 냉장고에 방치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채소 값마저 비싸 부담이 커지면서 냉동 채소를 구매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한다.

이씨는 "냉동제품과 맛 차이를 크게 못 느끼고 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해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유용하다"면서 "대파와 양파 말고도 다른 품목도 사볼까 한다"고 말했다.

농산물 가격이 천정부지 치솟으면서 'B급' 농산

물과 냉동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유통업체들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앞세워 B급 농산물을 시세보다 싸게 판매하는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 '못난 외모'로 상품성이 없어 산지 폐기됐었던 B급 농산물 판매가 늘면서 치솟는 생산비와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은 농가의 수익 확대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모양과 크기가 상품성 기준에 다소 못 미쳐 추석 제수용 구성품에서 빠졌거나 흠이 있어 출고되지 못한 과일이나 채소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 중이다.

현재는 '상생사과', '상생배', '상생파프리카'라는 이름으로 3종이 시중에 나와 있다. 일반 상품과 비교해 맛과 영양에 큰 차이가 없으면서도 시세보다 최대 30% 정도 싸다.

사과와 배는 올해 폭염과 폭우, 태풍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과일 중에서도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 KAMIS 따르면 10월 첫째주 10개 단위 사과(홍로)의 평균 소매가는 3만4182원으로 1년 전(2만



지난 14일 광주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채소를 골라 담고 있다.

4099원) 대비 41.8% 올랐다. 배(신고·10개 단위) 소매가격은 지난 13일 기준 2만6774원에서 3만1226원으로 16.3% 상승했다.

롯데마트는 이들 품목이 고물가로 시름이 큰 가계의 장바구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2016년부터 '상생 과일', '상생 채소'라는 이름으로 30여종의 B급 농산물을 운영해왔다. 올해는 9개월간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이상 증가했다.

홈플러스도 추석 연휴 이후 물가 안정을 위해 '맛

난이' 농산물 운영에 힘을 쏟고 있다. '못난이'는 '못났지만, 맛은 좋다'는 의미로, 홈플러스는 크기가 작거나 모양이 예쁘지 않고 미세한 흠집이 있는 농산물만 모아 상품화했다. 20여종의 과일·채소가 매대에 놓였으며, 일반 상품보다 약 20~30% 저렴하다.

이밖에 이마트는 추석 연휴 이후 재고로 남은 일명 '보조개 사과' (2.5kg)를 지난 7일부터 50개 점포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13일부터는 판매처를 전지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준비된 물량은 모두 5만봉이다. 보조개 사과는 우박을 맞아 형태가 다소 변형된 사과를 상품화한 것으로, 일반 상품보다 약 40% 싸다. 또 추석 연휴가 지난 뒤 수확한 나주배(3kg·상품)도 추석 이전보다 약 30% 저렴하게 판매 중이다.

이마트의 냉동 과일과 채소 매출도 늘었는데, 9월 한 달 동안 이마트의 냉동 과일 및 채소 매출은 전년 대비 9%가량 증가했다.

신선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고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서다. 대표적으로 냉동 망고 매출은 32% 늘었고, 냉동 마늘(60%)과 고추류(110%)도 판매가 눈에 띄게 늘었다. 견채소 매출도 16% 신장했다. 견나물류(6%)와 인삼더덕류(18%), 견버섯류(42%) 등도 평소보다 많이 팔렸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농협 전남본부 "올해 신곡 7만t 공급과잉"…RPC 쌀 수급대책 논의



지난 12일 농협 전남본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벼 수확기 농협RPC광주전남협의회 임시총회'에 참가한 농협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농협RPC광주전남협의회 임시총회**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는 지난 12일 '2023년 벼 수확기 농협RPC광주전남협의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회의에는 김경태 협의회장과 이기복 전남 부분부장(농협경제지주),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경전국RPC 협의회장)과 광주·전남 RPC 운영농협 조합장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23년 쌀 수급 및 수확기 전망,

2023년 공공비축미곡 매입 계획과 지난 6일 발표된 정부 대책에 대한 설명, 향후 수급대책 등을 논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벼 재배면적은 70만 8000ha로 전년(72만7000ha) 대비 1만9000ha(2.7%) 감소했고, 이는 전락작물지불제를 통한 사전적 생산조정을 추진한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수확기 대책발표에 따르면 올해 생산량은 368만 t, 신곡수요량은 361만 t으로 공급과잉은 약 7만 t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민간재고, 쌀값 동향,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할 때 시장격리 조치 없이도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종탁 본부장은 "올해 생산량은 전년 대비 8만 톤 감소한 368만t이고 공급과잉은 7만t으로 추정돼 수확기 쌀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남 농협은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토대로 쌀값 지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플랫폼 점검

**29일까지 파일럿 사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30일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공식 출범에 앞서 해당 플랫폼의 기능을 점검하기 위한 파일럿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16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진행되는 파일럿 사업에는 도매시장, 공판장, 중소형 마트 등 268곳이 참여한다.

파일럿 사업에서 각 업체는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을 통해 35개 청과물과 계란, 쌀 등의 품목을

거래한다.

농식품부는 파일럿 사업을 통해 거래 방법, 정산 체계, 물류 서비스 등을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유통단계를 줄이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앞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전국 단위로 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다.

시장 개설과 운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맡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농관원, 김장채소류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12월 2일까지 배추·무·마늘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16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김장채소류에 대해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잔류농약 조사는 김장철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배추, 무, 파, 마늘, 생강, 고추 등의 주요 산지에서 이뤄진다.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농산물을 폐기하거나 출하를 연기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전원범 문학 전집은 시 325편이 담긴 「망초꽃으로 서서」, 시조 214편으로 구성된 「선운사 동백꽃」, 동시 281편을 수록한 「둥근해를 공굴리며」 그리고 대표작을 엄선한 「전원범 문학선 99」 등 총 4권이다. 전 시인은 1960년대부터 동시도 시가 꽤야 한다고 선구적으로 주장하고 '동심의 시'라는 개념을 정립해 오늘날 동시의 수준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 <연합뉴스> 2023. 4.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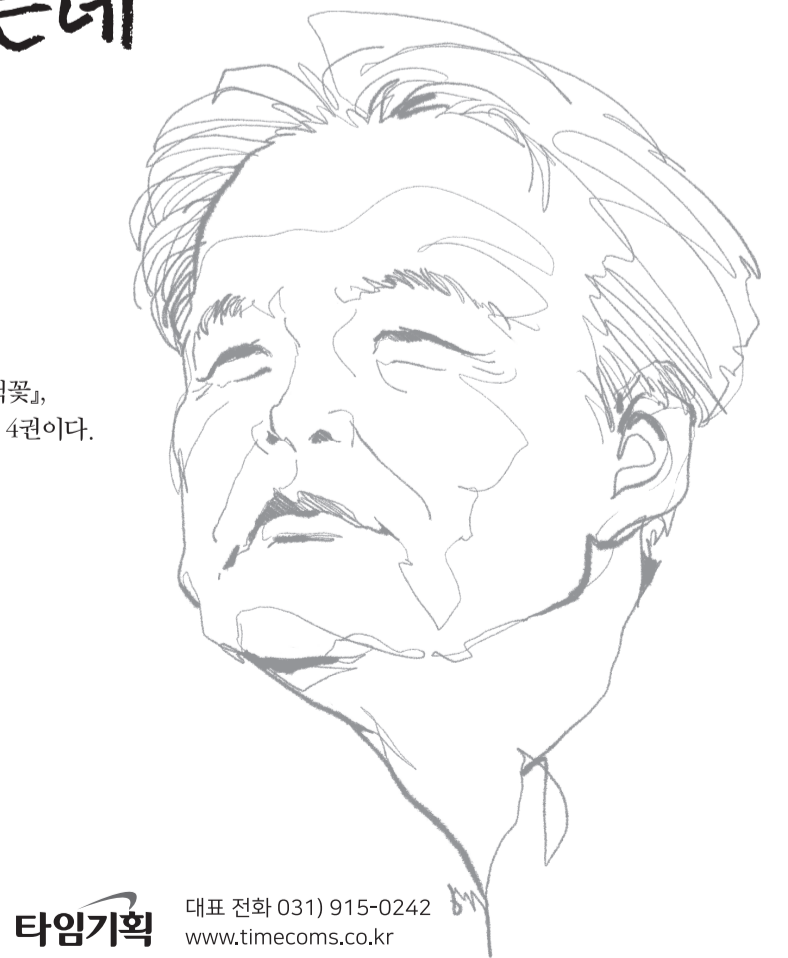
그의 시론을 압축하면 '시는 어렵지 않아야 한다. 시는 일상의 말이 아니다. 시어는 시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해석된 말'이라는 주장이다. - <뉴스 1> 2023. 4. 29.

'해의 시인'이라는 별칭은 그가 발표한 연작시 '해'에서 비롯됐다. 모두 70여 편을 썼고 해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광주일보> 2023. 4. 26.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 「둥근해를 공굴리며」(동시 전집)
-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